

【붙임3】

자기소개서

소속		직위		성명	
----	--	----	--	----	--

[성장배경]

○ 다양하고 생생한 교육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성장배경에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맨 먼저,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 시기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자치 활동과 학교민주화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선생님 열 두분이 해직되는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1999년 교사가 되어서는 토론, 협동학습 등 수업혁신과 학생자치형 학급운영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교육운동을 했습니다. 2010년 혁신학교 혁신부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경험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연구·정책 기반의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정책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2015년과 2018년, 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정책기획관)과 교육부(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에서 일하면서 교육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2020년 국회 교육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 교육 전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간 것도 경험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 혁신학교, 시도교육청, 청소년단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사회단체, 언론(신문, 방송, 유튜브) 등과의 협업도 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 유연하고 개방적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는 10대가 되기 전에 조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생계를 꾸리시면서 강원, 전남, 광주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8살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는 힘든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늘 따뜻하고, 기다려주고, 힘을 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은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시고, 웃어주시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 교육학 석사·박사과정을 마칠 때, 교직을 두고 국회로 들어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인생의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해주신 말씀들은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유연함과 따뜻함, 개방성과 변화 지향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 개인의 창조성과 공동체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왔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다른 네 개의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 혁신학교 공

동체, 교육정책팀 공동체, 국회의원실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종교 공동체는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회 회장 등을 하면서 자치와 리더십은 물론 팔로우십을 익혔습니다. 혁신학교 공동체는 2009년부터 의정부에서 20여 명 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문제해결의 과정, 새로운 혁신과 프로젝트의 추진은 당시 경기북부권의 학교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연구원과 교육청에서의 교육정책팀 공동체는 연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의 흐름으로 교육정책이 자리 잡도록 만들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정책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며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교육감 직보 시스템으로 관료화, 시장화, 권위주의화 되는 흐름을 막고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실 공동체는 11명으로 이뤄진 보좌진, 특히 20대와 30대로 이뤄진 비서관들과의 소통은 물론 타 의원실과의 공조, 타 정당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교육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에게 배운 건 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원동기]

○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의미있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지원동기는 진정한 공동체 학교와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성장이 중요하며, 민주학교, 생태학교, 마을학교,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은 심성과 인성의 풍부함은 물론 직업과 진로, 그리고 민주시민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함께 하면서 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생애 최고의 도전이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금곡고는 이미 이런 방향의 설립취지를 가졌고, 추진 초기 단계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 성장에 중심으로 두고, 교사 출신으로서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지향하며 이를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 혁신교육과 대안교육의 꿈을 미래교육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혁신학교와 2023년까지 이어진 혁신교육을 많은 분들과 함께 추진하면서 교육변화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여기에는 대안교육은 물론 평생교육과 미래교육의 길까지 닿아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전국의 대안학교를 탐방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관련 연구(경기)와 컨설팅(서울, 충북, 강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계기는 학교의 내부 혁신을 위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 교육과정과 평가혁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입학과 졸업 전후의 학생들의 생애사 혁신, 학생들의 삶과 미래사회에 걸맞는 학교행정과 조직·인사혁신 등입니다. 저는 이런 혁신교육과 대안교육의 꿈을 미래교육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 **경남교육의 주체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2014년 경남교육이 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함께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는 물론 교육정책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의공동체, 행복학교, 교육정책, 행복교육지구 등에서 경남의 추구하는 교육의 길에서 대화로, 강의로, 컨설팅으로 배우고 익히고 전했습니다. 복잡성 교육이론과 함께 학교현장과 교육부(청), 국회를 체험한 저는 지역과 학교에서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큰 울림과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곡고의 노력과 경남교육에서의 흐름을 재구성해서 향후 전국적으로 혹은 동아시아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금곡고에서 이 경험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육철학]

○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학교의 ‘상식-소통-공동체’ 를 지향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보다 또렷해진 교육철학은 ‘상식(common sense)’ 으로 ‘소통(communication)’ 하면서 ‘공동체(community)’ 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상식은 어느 누구의 어떤 말과 행동이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상식에서의 의미를 변화의 초석으로 삼으며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민주주의와 교육]을 쓴 듀이(John Dewey) 사상과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금곡고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소중한 노력을 상식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변화의 기틀을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플립러에서 시작하는 ‘플립더시스템(Flip the System)’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철학은 ‘플립더시스템’ 입니다. 이 말은 교육현장이자 플립러인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실존적 위기 시대에 교육변혁, 학교변혁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특히, 교육불평등의 문제와 모두의 질 높은 학습 보장의 문제를 연대·협력하면서 ‘공동체’ 와 ‘공유지식’ 으로 풀어나가는 일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주체화-사회화-자격의 교육균형을 맞추면서 ‘평교사 리더십’ 과 ‘교사 판단의 중심성’ 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사전문가로서 성장’ 과 ‘학부모 주체화’ 가 신뢰와 지속성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교육철학은 ‘교사’ 와 ‘학부모’ 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생성되는 학교 신뢰의 형성은 미래교육에 가장 중요한 기틀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우리가 신뢰하는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2015)에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대화와 행동의 원칙’ 으로 도전하고 가능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신뢰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